GLOBAL PORTFOLIO

2025. 10. 13.

리서치센터 글로벌주식팀

서정훈 팀장, CFA
junghun1212.seo@samsung.com

김도현 수석연구위원
dohyun3258.kim@samsung.com

김중한 수석연구위원
joonghan1.kim@samsung.com

이창희 수석연구위원
changhe01.lee@samsung.com

이영진 선임연구원, CFA
youngjin91.lee@samsung.com

유승민 선임연구원
seungmin.you@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10월 | 3주 차

글로벌 주간 추천 종목

단기 과열 구간에 나타난 트럼프

단기 과열 구간에 나타난 트럼프

지난 6개월간 뉴욕 증시는 버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동안에도 신고가를 지속 경신해 왔다. 속등에 따른 부담은 명확했지만, AI라는 기술 변혁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큰 수익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욱 크게 자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은 각종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했고, 그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강도지수(RSI)는 지난 금요일 직전까지 과열 기준선인 70을 넘어 80선마저 웃돌고 있었다. 2000년 이후 해당 수준의 과열은 단 다섯 차례만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만큼 트럼프가 다시 나타난 시점은 여러 의미로 절묘했다.

S&P500의 P/E 또한 23배를 넘나들면서 전고점에 근접했던 시기였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이 와중에 그간 시장이 잊고 있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된다는 사실은 매도의 빌미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앞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강대강 대치 구도를 일찌감치 형성해 놓았다. 미·중 정상 간의 해빙 무드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APEC(10. 27)은 이제부터 대중국 100% 관세 여부를 결정짓는 불확실한 이벤트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4월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양측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고 최악의 국면을 회피하는 경로가 결국에는 설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1) APEC 회담까지 아직 시일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점, 2) 美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3) 3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10월 FOMC 회의 일정 또한 이 기간에 중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그간 완고했던 중국 측의 대응 방식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희토류 이슈를 먼저 꺼낸 것도 중국임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양측 정상회담을 단 한 번도 공식화한 적이 없기도 했다.

상기 여건들을 종합해 보면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Trade'를 염두에 두고 서둘러 'Buy the dips'에 나서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희토류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간 시세를 분출했던 AI 칩 관련주들은 더 큰 변동성을 경험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번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역시 칩 설계 프로그램을 목표로 했다는 시각이 현재 지배적이다. 마침 금주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TSMC와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현재 시장의 기류를 감안하면 이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은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음 장 계속)

삼성 글로벌 포트폴리오

엔비디아
TSMC ADR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빈후드 마켓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라인메탈
도쿄일렉트론

EXECUTIVE SUMMARY

따라서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을 고민하기보다는, 보다 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다. 어쨌든 과열 구간에서 새로운 소음이 불거진 만큼, 시장에게는 이를 해석하고 소화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무역 분쟁 재점화의 초기인 만큼, 미국과 중국의 설전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겠다. 그러나 펀더멘털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만큼 정책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주식 시장은 분명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과 달리 미국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 가치가 동반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부재한 점도 현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시장 내 핵심 모멘텀인 AI 수요 확대는 매크로 이슈와 무관한 구조적인 기술 변화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AI 관련주에 대한 버블 논란이 줄기차게 언급되고 있지만, 최소 빅테크 그룹의 경우 주가 상승이 뚜렷한 이익 성장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하기 힘들 것이다. 가시적 이익 성장은 물론 높은 마진율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밸류가 마냥 부담스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도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12개월 선행 P/E는 31배로, 작년 여름 고점 44배와 비교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직전 5년 평균인 39배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현재 이 회사의 ROE는 80%, OPM은 7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잇따른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순환형 자금 조달의 전형이라며 폄하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한 결과로 본다.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는 공급자 우위 구도와 막강한 이익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이들이 회계상 이익을 내는 데 급급해 순환 거래를 시도했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자본력을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많은 AI 개발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 Lock-in되게 함으로써 중장기 이익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겠다. 많은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할인이 아닌 프리미엄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큰 틀에서 여전히 AI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까지 예정된 각종 이벤트를 통과하는 동안 점진적인 분할 접근을 검토해 볼 만하다. 3분기 동안 주요 매크로 지표가 강건했다는 점은 이번 실적 시즌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도 될 수 있다. 무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주가 반응이 밋밋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라도 재평가될 것으로 본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업체들의 경우 AI 컴퓨팅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한 반면, 최근 반도체주와 비교해 주가 과열 부담이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서정훈)

삼성 글로벌 포트폴리오

엔비디아
TSMC ADR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빈후드 마켓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라인메탈
도쿄일렉트론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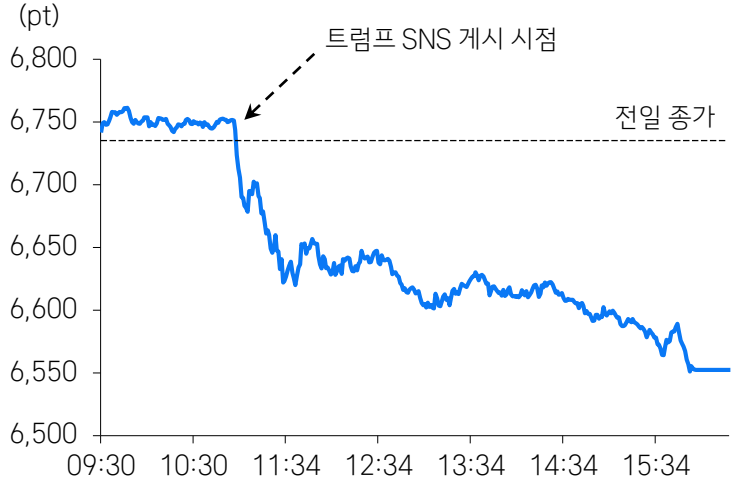
Macro & Market Issue

트럼프가 재점화한 美中 무역 분쟁, 그간 평온했던 뉴욕 증시에 큰 파장을 초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트럼프의 무역 분쟁 관련 메시지 게시와 함께 급전직하. 지수는 120일 만에 2% 이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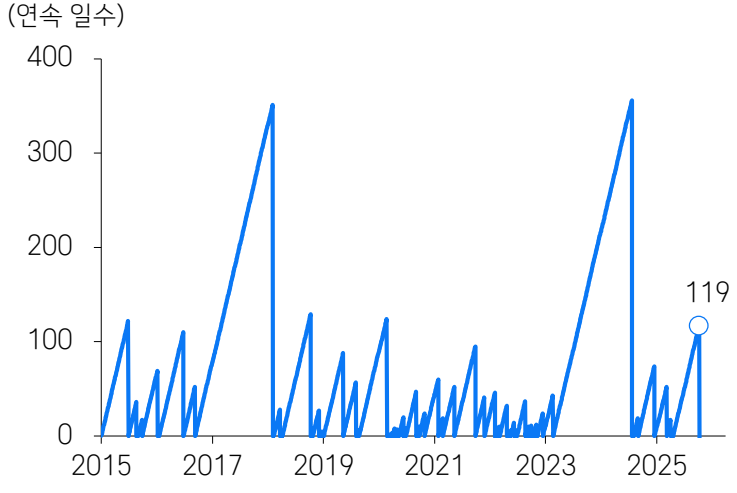
- 장 마감 이후 1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번 더 게시하면서 S&P500 선물은 3% 이상 급락
- 올 4월 이후 S&P500 지수는 119 거래일 연속으로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던 평온한 기간을 유지. 그러나 그간 시장이 잊고 있던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잠잠했던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

지난 금요일(10.10일) S&P500 지수 장중 변동 추이



자료: Bloomberg

지수가 2% 이상 내린 적이 없던 일수 누적 추이 – 120일 만에 2% 이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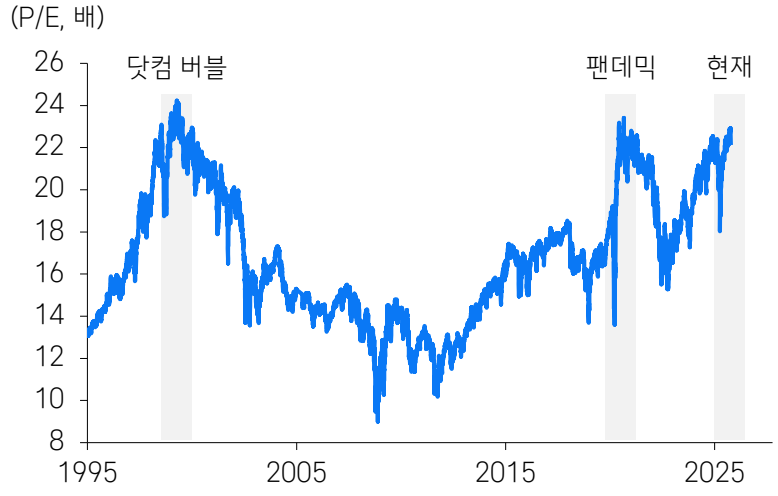
참고: 뉴욕 증시 거래일(Trading day) 기준
자료: Bloomberg

마침 뉴욕 증시는 AI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단기 과열 부담이 팽배하던 시점

무역 분쟁 재점화는 시장이 간과할 수 없는 이슈지만, 증시 전반에 버블 논란이 불거지던 타이밍에 발발했다는 점이 더 큰 변동성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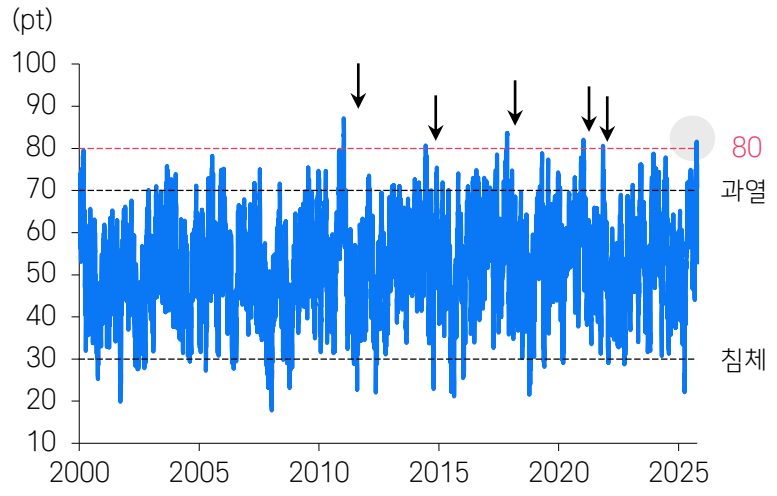
- S&P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는 23배를 넘나 들면서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상승. 밸류 부담이 적지 않았던 타이밍
- 美 빅테크들의 대단위 AI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주들의 주가는 연일 급등.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대강도지수(RSI)는 직전까지 80선을 상회. 해당 수준의 과열은 2000년 이후 단 5차례에 불과

S&P500의 P/E 멀티플 추이 – 높은 금리 불구 역사적 고점 수준에 근접



참고: 12개월 선행 기준
자료: Bloomberg

시세 분출하던 필 반도체 지수 – 전례가 드문 수준의 과열 구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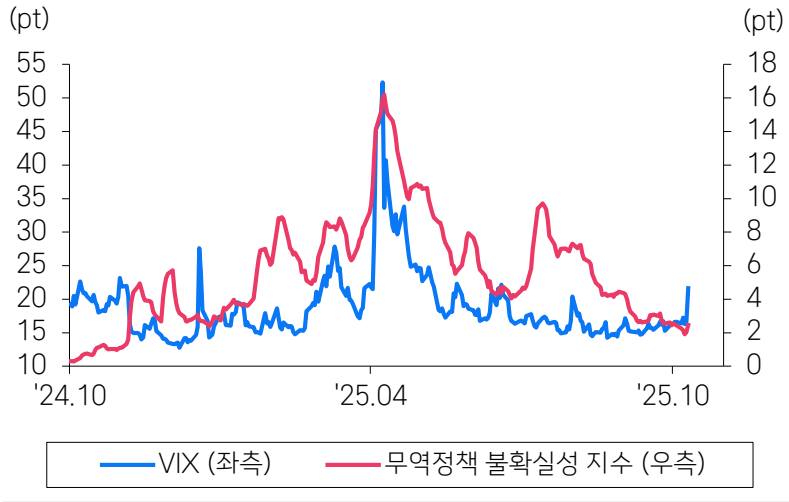
참고: 상대강도지수(RSI) 1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아직 무역 분쟁 재점화 초기 구간, APEC 정상회담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일정

중국이 먼저 희토류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과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은 경계감을 제공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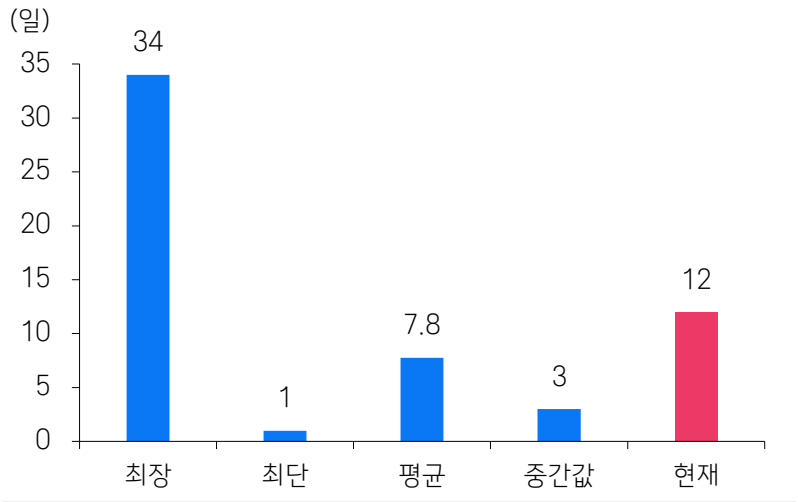
- 이는 강대강 대치가 더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 따라서 무역 분쟁 재점화 초기 구간에 서둘러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
- APEC 정상회담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 동 기간까지 증시 불확실성 지속될 가능성 대비 필요. 더불어 현재 미국 정부 셧다운이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 동 기간 FOMC와 미국 기업 실적 시즌 이벤트를 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VIX - 중국 측 강경 태도가 지속된다면...



참고: Bloomberg U.S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기준
자료: Bloomberg

역대 셧다운 기간 비교 - 현재 평균치를 넘어서 장기화 되는 양상



참고: 10월 12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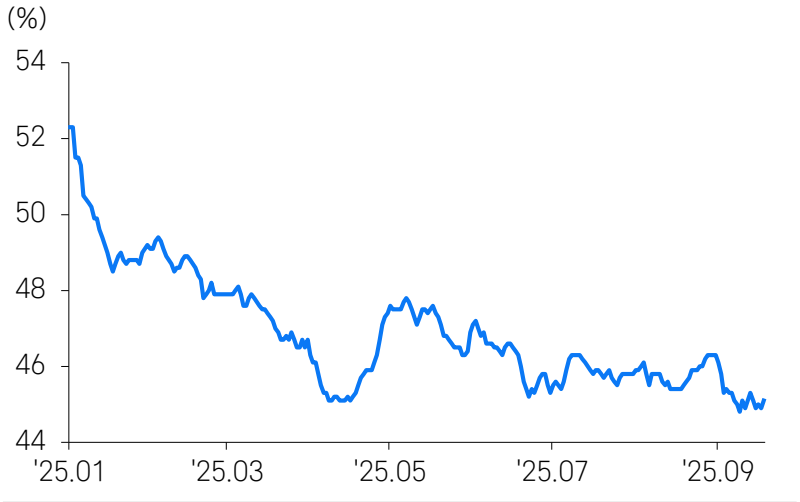
美 주식, 국채, 달러

낮은 지지율은 강경 대응 제한할 수도... 4월과 같은 트리플 약세 없단 점도 긍정적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美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 더불어 셧다운 책임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조사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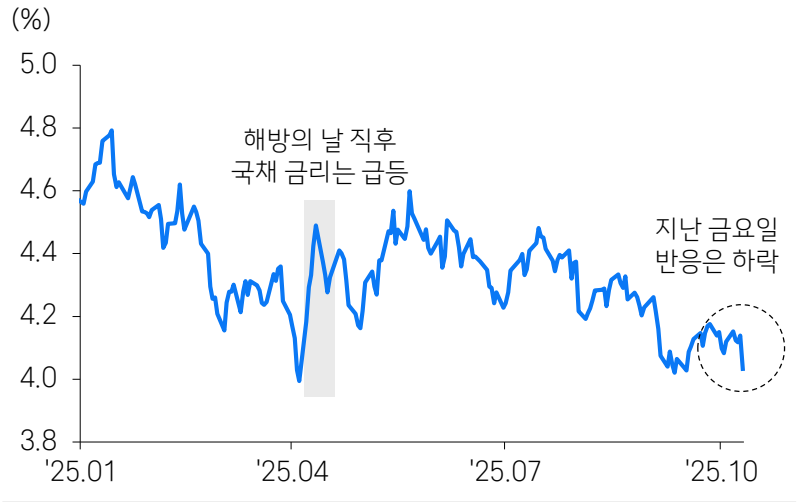
- 현재 미국 셧다운에 대한 여론이 정부 여당에 긍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 정치적 입지가 올해 초와 대비해서 다소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사태를 장기화해서 끌고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 더불어 학습효과로 인해 전면적인 sell off 확률은 이전보다 낮다고 판단. 실제 지난 4월 해방의 날 직후 달러 표시 자산 전반에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인 美 국채 가격도 함께 급락(=금리 상승). 그러나 지난 금요일 국채 가격 반응은 상승세 (=금리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추이 – 현재 취임 후 최저치 부근



자료: Bloomberg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 지난 4월과 달리 금요일 반응은 하락세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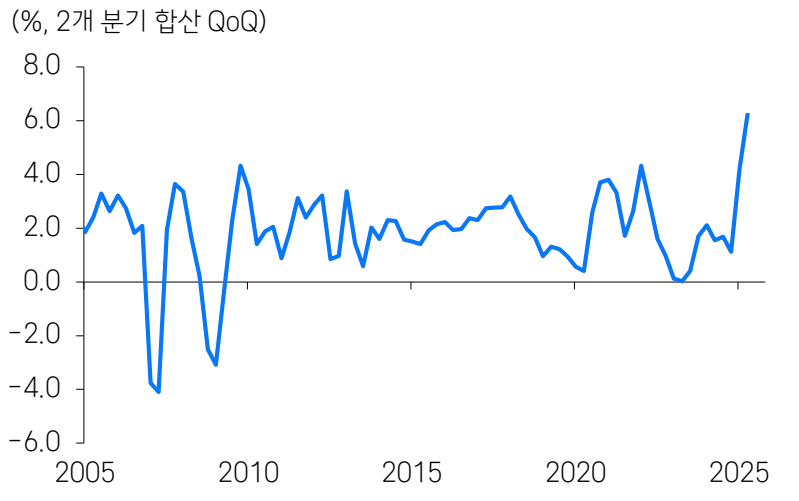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I 투자 모멘텀, 매크로와 지정학적 이슈와 무관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 상기 필요

현재까지 美 실물 경제와 함께 증시 상승을 견인해 온 재료는 명백히 AI 관련 투자. 현재 불거진 소음으로 중단될 흐름이 아님을 유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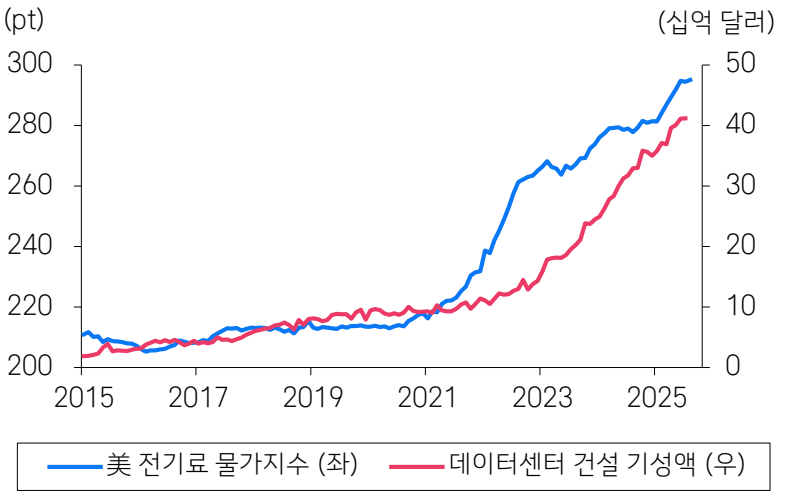
- **올해 초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극심하던 와중에도 빅테크들의 IT 관련 투자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 이는 매크로와 지정학적 이슈와 무관하게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 투자는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현재 각 개인과 기업들의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도 주목**
-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초기에는 실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현재 미국 경제의 전반에는 AI로 인한 변화가 실제로 감지되는 중. 현재 AI 모멘텀은 단순 기대감이 아닌, 현실 경제에 충분히 기반했다는 주장이 가능한 셈**

美 GDP 내 IT 관련 지출 추이 – 상반기 관세 소음 당시에도 역대급 신장세



참고: 컴퓨터 및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지출 기준. 직전 2개 분기 합산의 전기비 상승률 기준
자료: Bloomberg

美 경제 전반에선 AI 투자 확대에 따른 실물 지표 변화가 감지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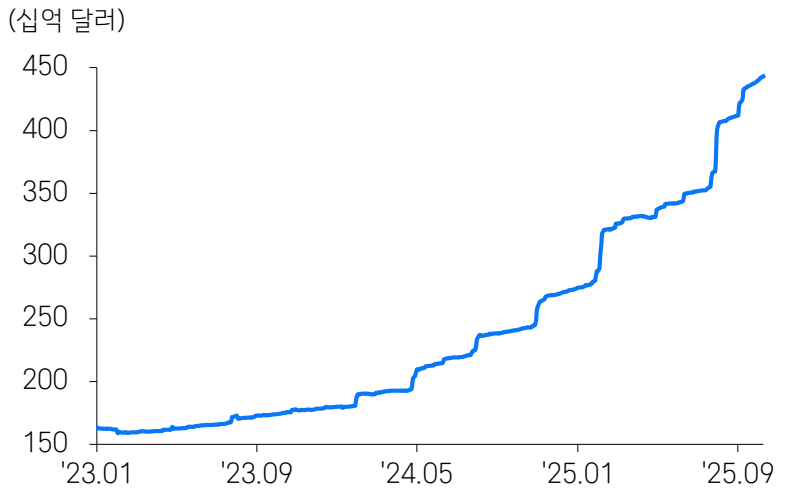
참고: CPI Electricity Price Index 및 Total Private construction Spending – Datacenter 기준
자료: Bloomberg

AI 투자 러쉬는 현재 진행형,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컴퓨팅 수요는 지속 증가 중

알파벳 등을 비롯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처리해야 하는 토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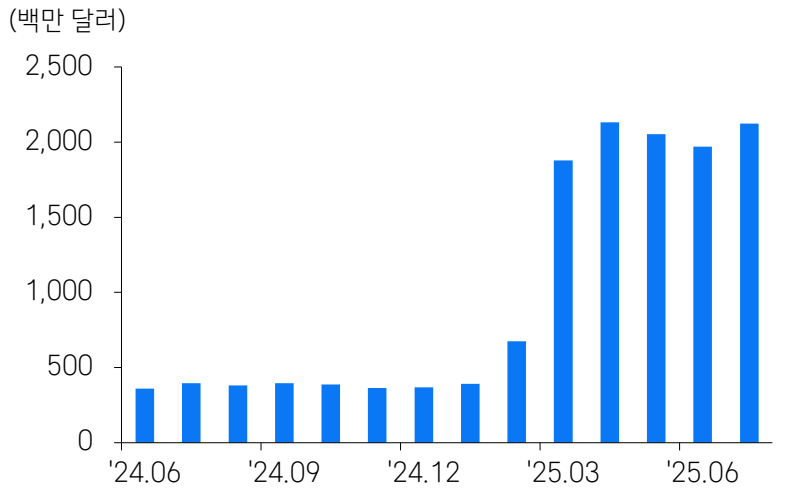
- 토큰은 AI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최근 자신들의 토큰 처리 규모가 월간 수십조 개 단위까지 급증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AI 인프라 확충이 필연적이라고 주장
-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정점 통과 논란은 지난해 부터 지속됐지만,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이들의 군비 경쟁은 지속. 최근 미국의 IT 관련 항목의 수입량 급증 역시 AI 인프라 투자의 시급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해 가능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규모 합산 추이



참고: MSFT, AMZN, GOOGL, ORCL, META의 12개월 선행 CapEX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미국 IT 관련 수입액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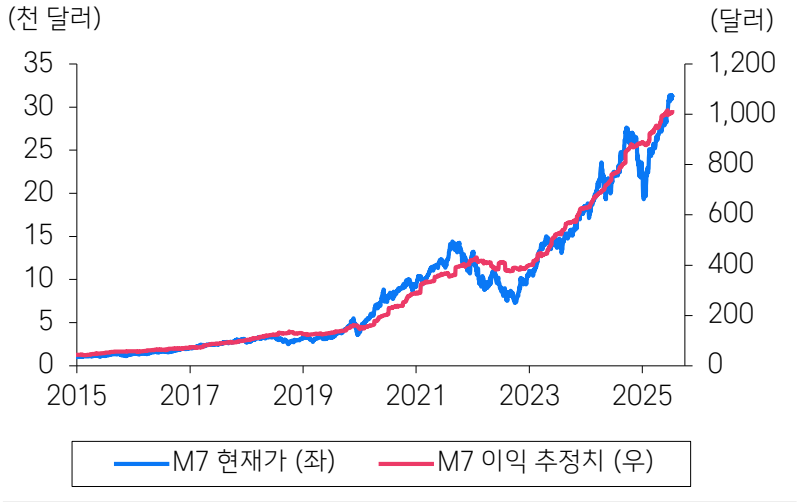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버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AI 빅테크들의 이익 가시성은 여전히 高

빅테크 중심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주가 거품에 대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제기. 그러나 이들 주가는 철저히 이익의 성장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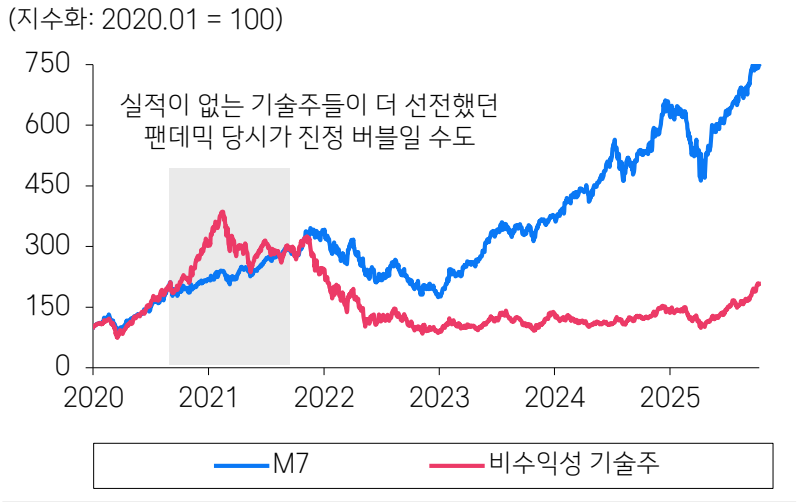
- M7 그룹의 주가 방향성은 그들의 이익 성장과 일치. 밸류에이션 역시 과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고점과 비교할 경우 꽤나 여유가 있는 편. 특히나 이들의 마진율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 또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
- 현재 시장은 이익이 부재한 기업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중. 팬데믹 랠리 당시 비수익성 기술주(non-profitable tech)들이 M7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현재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 이 역시 실적 맥락으로 설명 가능

M7 그룹의 주가의 이익 추정치 추이 – 동행



자료: Bloomberg

M7과 비수익성 기술주의 주가 상승세 비교 – 차이는 결국 실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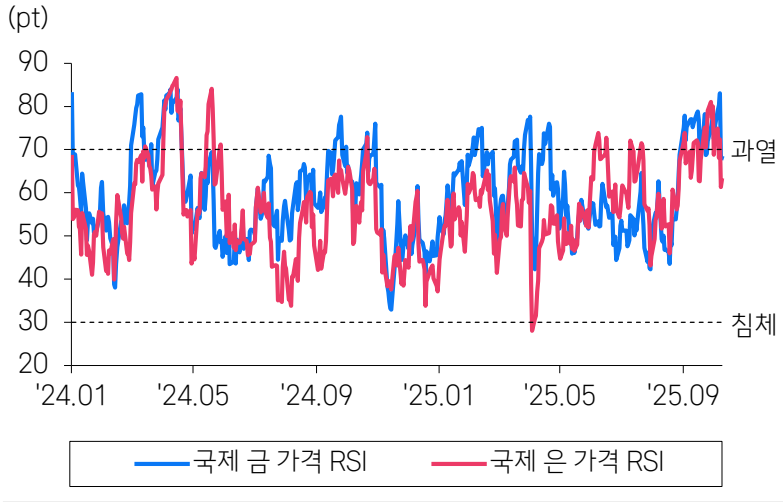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단기 과열이 더 우려되는 곳은 주식 外 시장 – 최근 귀금속 등에서 과열 신호 완연

사실 매크로 불확실성 정도가 과거 대비 매우 높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금 가격은 연일 신고가 랠리를 지속. 가상화폐도 유사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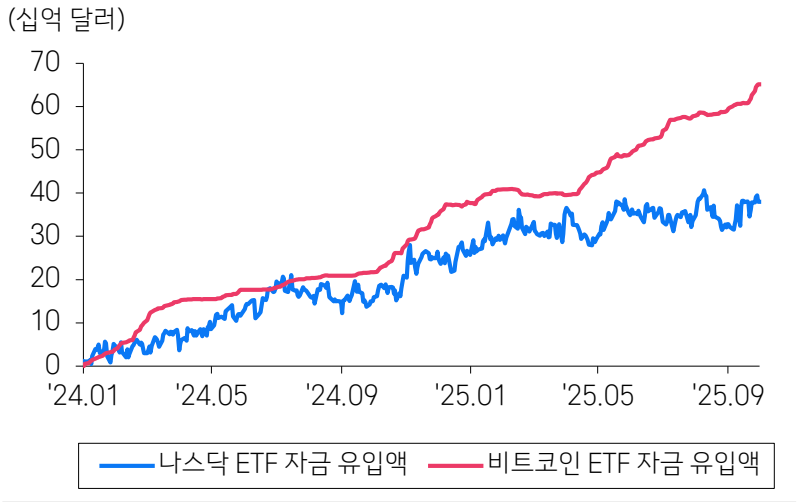
- 상대강도지수(RSI) 기준 국제 금 가격은 극심한 과열 구간에 진입한 다음 최근 일부 조정. 은(Silver) 가격도 유사한 흐름
- 2024년 이후 미국 대표 기술주 ETF인 QQQ와 비트코인 ETF인 IBIT 유입액을 살펴보면 후자(後者)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상황. 빅테크에 수급적 쏠림이 심각했다고 보기 어려운 셈. 상대적 관점에서 미국 기술주에 버블 신호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

국제 금 및 은 가격의 상대강도 지수(RSI) – 두 자산 모두 과열 구간 위치



자료: Bloomberg

나스닥 대형주 ETF와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액 –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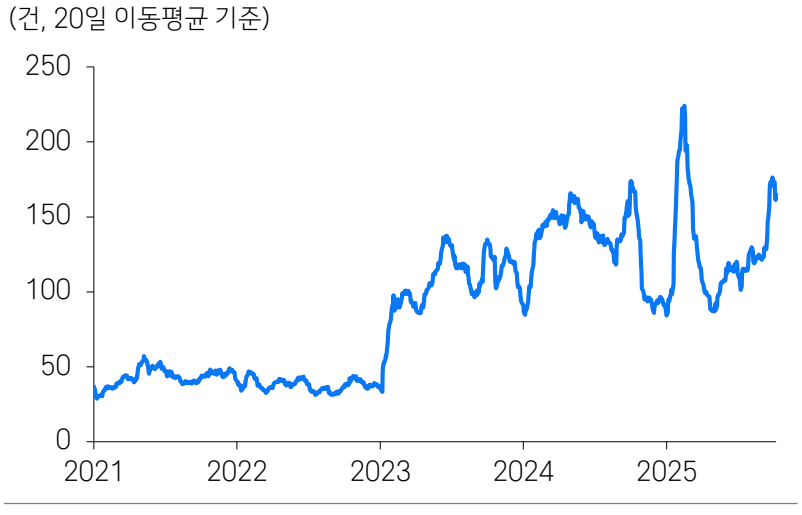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연속됐던 대단위 규모의 AI 투자 소식에도 시장의 공격적 베팅은 부재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주 레버리지 ETF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팬데믹 랠리 당시와 달리 최근 유출세가 지속되는 것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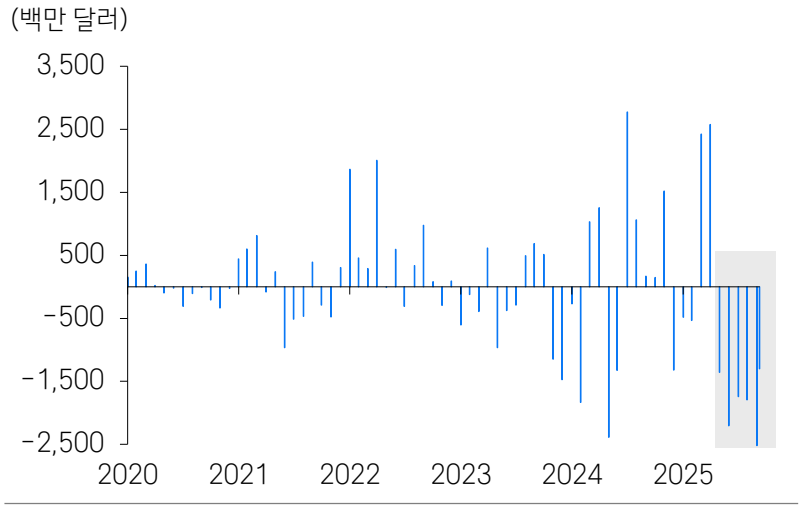
- 국내 연휴 기간 동안 AI 기업간의 합종연횡 소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신고가 랠리를 지속
- 그러나 이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각종 레버리지 ETF의 자금 흐름은 최근 유출세. 이는 과거 과열 구간에서 유입세가 지속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 오히려 이후 추가 상승이 나타날 시, FOMO 현상이 뒤따를 수도 있는 셈

AI 투자 관련 뉴스 건수 추이 – 연일 시장 센티먼트를 자극



자료: Bloomberg

필 반도체 x 3배(SOXL) –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는 오히려 인기가 덜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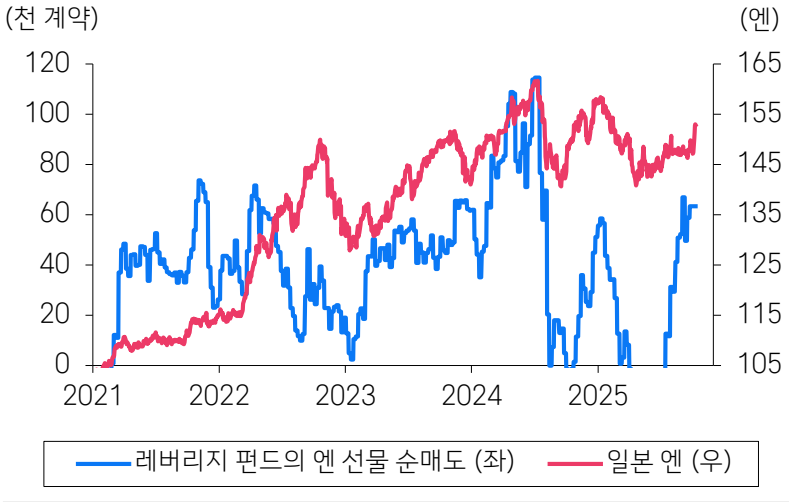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 반응 – 엔 캐리 트레이드의 부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취임 후 아베노믹스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엔화는 대거 약세로 반응함과 동시에 日 증시 상승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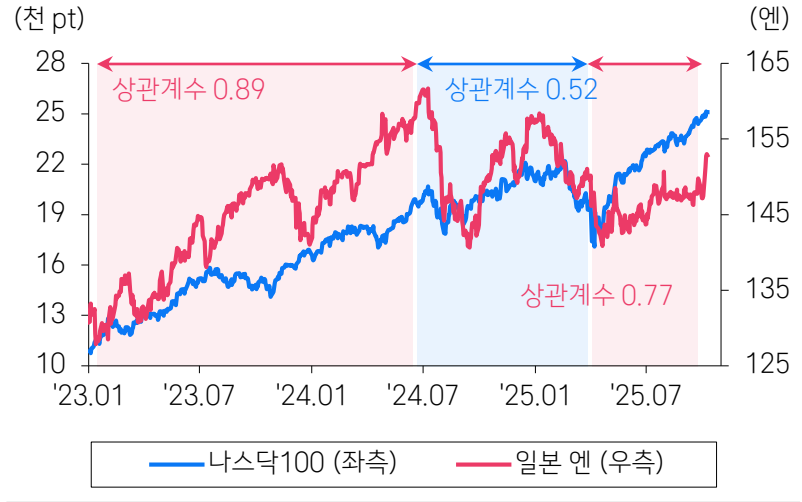
- 최근 일본 실질 임금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등, BOJ의 금리 인상 결정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해당 시점에 온건한 통화정책 선호하는 신임 총리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확대되는 중. 엔화 환율은 152엔 넘어서며 최근 8개월래 최저
- 이러한 엔화 약세는 글로벌 엔 캐리 트레이드를 재차 자극할 가능성 상존. 저렴한 엔 조달을 통해 각종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 실제 2023년부터 두드러진 빅테크의 시세 분출은 엔화의 약세에 상당분 기여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엔 약세 구간에 동조화 강화)

레버리지 펀드들의 일본 엔 Short 포지션 추이 – 최근 약세 베팅 규모 증가



자료: Bloomberg

일본 엔 환율과 NASDAQ100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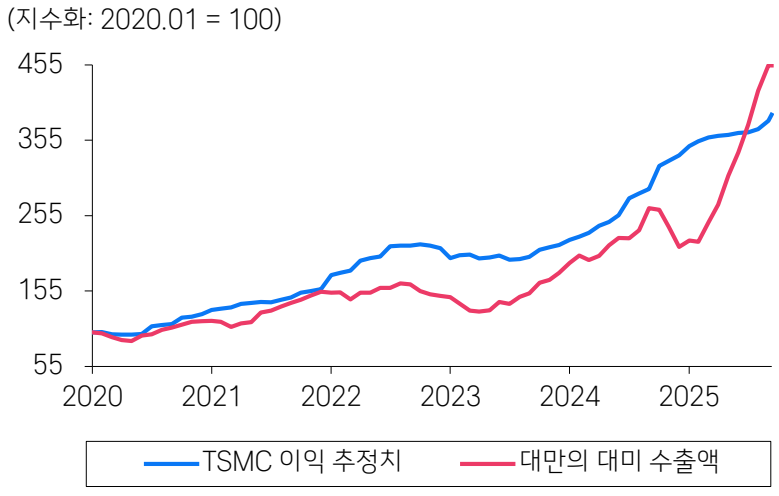
참고: 지난 금요일 직전 수준까지 반영
자료: Bloomberg

금주 공개되는 TSMC와 ASML의 실적 통해 최근 AI 투자 동향 가늠될 전망

주요 IT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그룹인 TSMC와 ASML의 실적 여하에 따라 AI 인프라 관련주의 단기 향배 결정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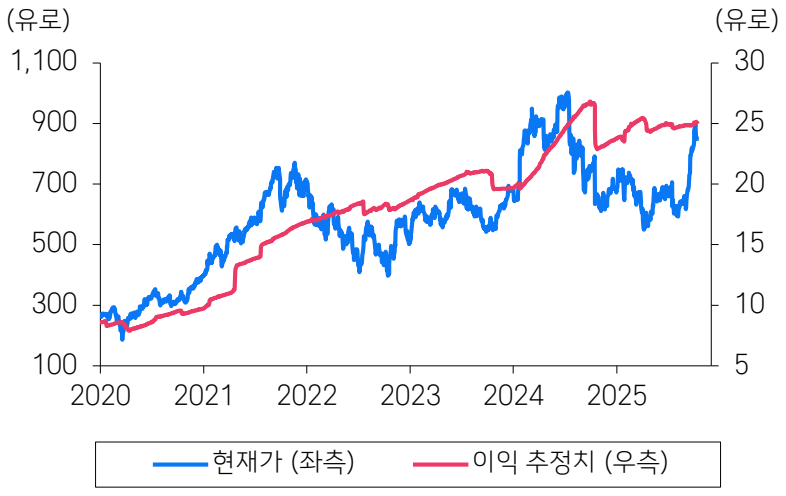
-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서 단기 과열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인 만큼, 사소한 빌미로 인해 차익 실현 압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국면. TSMC와 ASML의 실적에서 일부 투자자 실망감이 초래될 경우 업계 전반 조정 불가피할 전망
- 다만 AI 투자의 장기 연속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은 상태. 더불어 최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이들의 실적 관련 메시지도 낙관론이 반영될 가능성 농후. 따라서 업종 전반에 'sell on the news' 흐름 나타날 경우 신규 진입 기회 모색 필요

대만의 대미 수출액 규모 감안하면 TSMC의 이익 전망도 낙관 가능



참고: 대만의 대미 수출액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선단 반도체 수요 급증 추세 역시 ASML 장비 수요를 재차 견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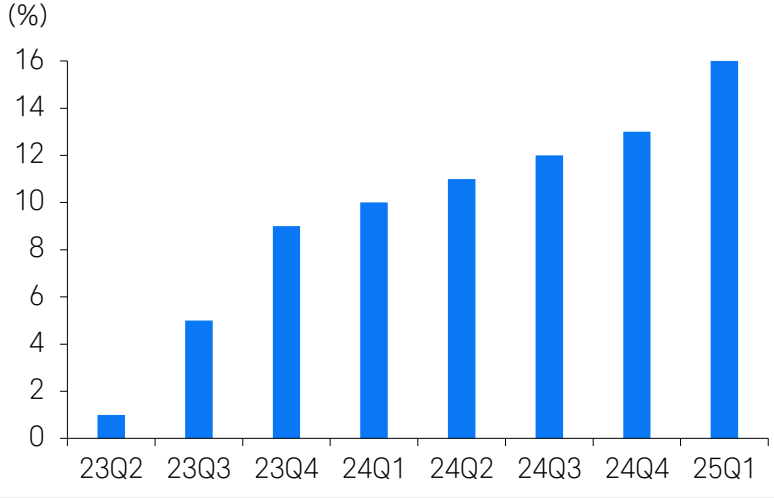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클라우드 플랫폼업체, 이달 말 실적 발표 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나을 수도

9월 이후 반도체 업종의 강세와 달리 알파벳,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클라우드 플랫폼 업종 주가는 상대적으로 소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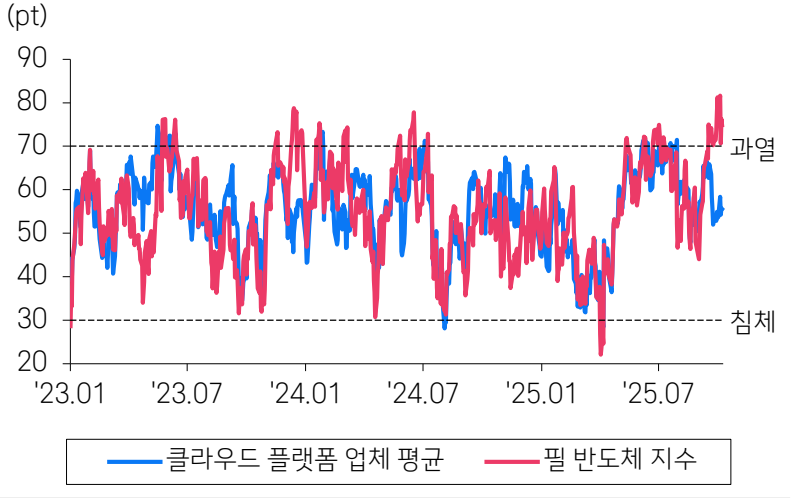
- 그러나 금번 실적 시즌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수익화 신호는 더욱 명징해질 가능성 높다고 판단.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 이들의 견조한 마진율이 재차 확인된다면 견조한 주가 흐름 역시 기대 가능
- 최근 이들 그룹은 선제적인 주가 조정을 통해 과열 부담을 상당분 해소한 상태. 반도체 업종의 단기 과열이 우려되는 투자자의 경우 월말 실적 발표를 대비한 사전적인 포트폴리오 편입을 검토해 볼 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AI 워크로드 기여도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업체들의 평균 상대강도 지수(RSI) 추이



참고: MSFT, GOOGL, AMZN, ORCL의 RSI를 단순 평균, 지난 금요일 직전 수준까지 반영
자료: Bloomberg

Issue Calendar | 10월 3주 차

13 월

미국
- 채권시장 휴장 (콜럼버스의 날) ★
- OPEC 월간 보고서

일본
- 휴장 (국가 체육의 날) ★

독일
- 8월 경상수지

14 화

미국
- 9월 NFIB 소기업낙관 지수

중국
- 10월 무역수지

유로권
- 10월 ZEW 경기전망 지수

영국
- 8월 고용지표

독일
- 9월 소비자물가 지수

15 수

미국
- 9월 소비자물가 지수 ★
- 10월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

중국
- 9월 소비자물가 지수

일본
- 8월 산업생산

16 목

미국
- 9월 생산자물가 지수 ★
- 9월 소매판매 ★
-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영국
- 8월 GDP

17 금

미국
- 3분기 애틀랜타 연준 GDPnow
- 9월 산업생산

유로권
- 9월 소비자물가 지수

〈실적〉

10/14 (화): JP모건체이스, 존슨앤존슨,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블랙록, 씨티
10/15 (수): ASML,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프로로지스
10/16 (목): TSMC, 네슬레, 찰스 슈왑,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10/17 (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우리 시각 기준 (GMT+9)
* 발표 기관, 기업 및 국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ART 02

Global Portfolio

Global Portfolio

삼성 글로벌 포트폴리오

국가	종목명	업종	종목코드	시가총액 (조 원)	편입 후 수익률		
					편입일	수익률	BM 대비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	NVDA US	6,365	01.03	26.78	16.51
미국	TSMC ADR	반도체	TSM US	2,082	05.30	45.18	34.34
미국	알파벳	플랫폼	GOOGL US	4,099	04.04	62.48	33.34
미국	아마존	이커머스	AMZN US	3,300	10.01	-1.93	0.43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MSFT US	5,431	05.01	20.11	3.19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소프트웨어	PLTR US	595	07.25	10.48	7.91
미국	로빈후드 마켓츠	금융	HOOD US	177	09.19	11.36	13.04
미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에너지	CEG US	165	09.12	13.91	14.40
독일	라인메탈	방산	RHM DE	144	09.05	7.88	3.87
일본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8035 JP	130	09.19	14.33	12.74

참고: 2025.10.10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I Trend | 상향되는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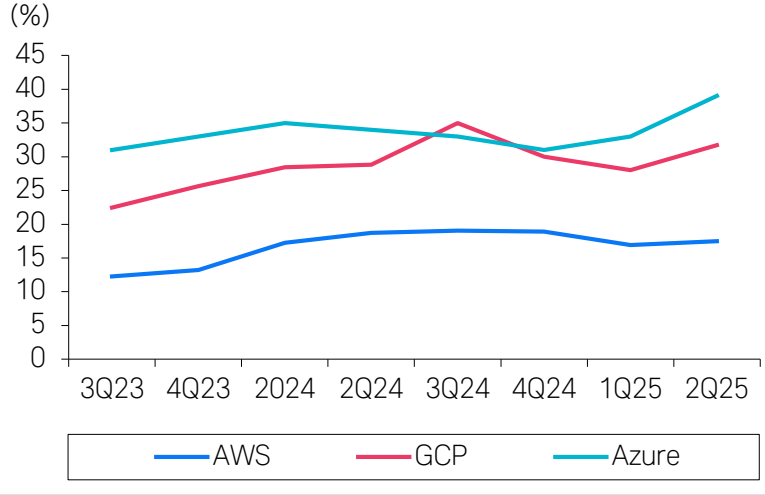
▶ **이번 분기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성적표는 긍정적: 마이크로소프트 Azure +39%, 구글 클라우드 +31.7%, 아마존 AWS +17.3%**

▶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견조한 AI 수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지속되는 흐름**

▶ **타이트한 수요-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공격적 캐파 공급 지속되며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전망치 상향되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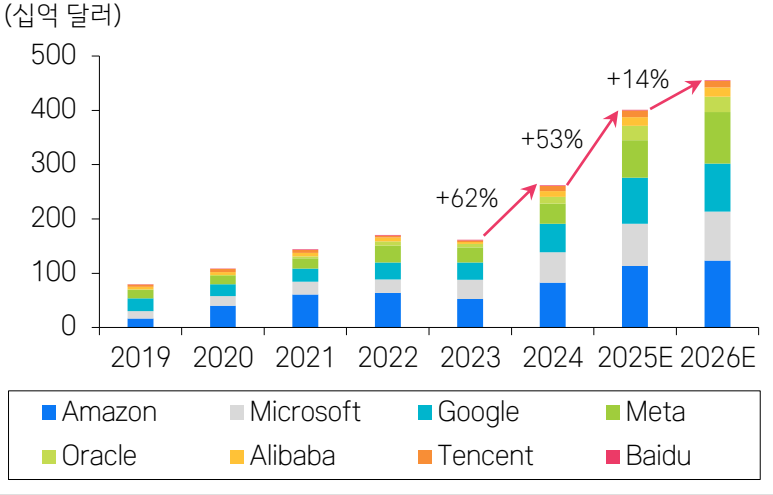
- 알파벳: 25년 CapEx 전망치 기존 750억 달러(4Q24 실적에서 발표) → 850억 달러로 상향
- 메타: 25년 CapEx 전망치 기존 640~720억 달러 → 660~720억 달러로 하단 상향. 26년에도 유사한 상승 전망
- 아마존: 2Q CapEx는 314억 달러 기록. 하반기에도 분기별 유사한 지출 전망으로 25년 약 1,200억 달러 규모 지출 전망

하이퍼스케일러 빅3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률 (YoY)



참고: CY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CapEx 전망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메모리 반도체 | AI가 견인하는 매출 성장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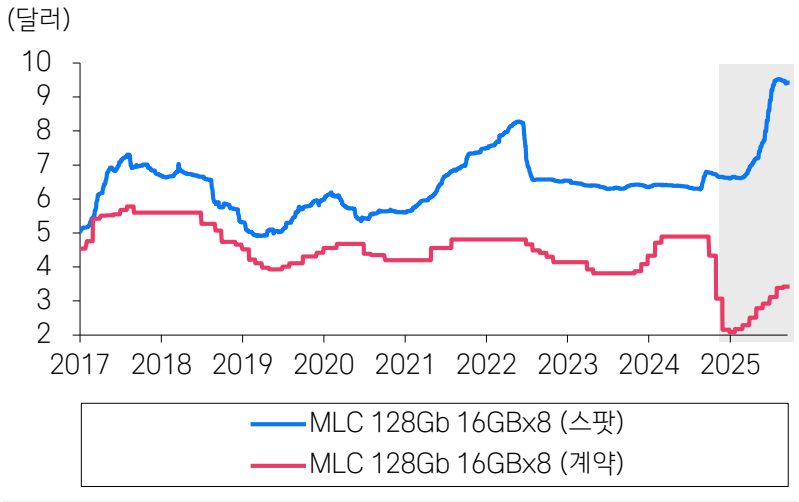
▶ 생성형 AI로 인한 데이터 폭증으로 HDD 공급 부족 현상 지속

- 웨스턴 디지털은 9월 12일 고객사에 전례 없는 수요 증가로 모든 HDD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납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통지

▶ NAND 수요 증가하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 재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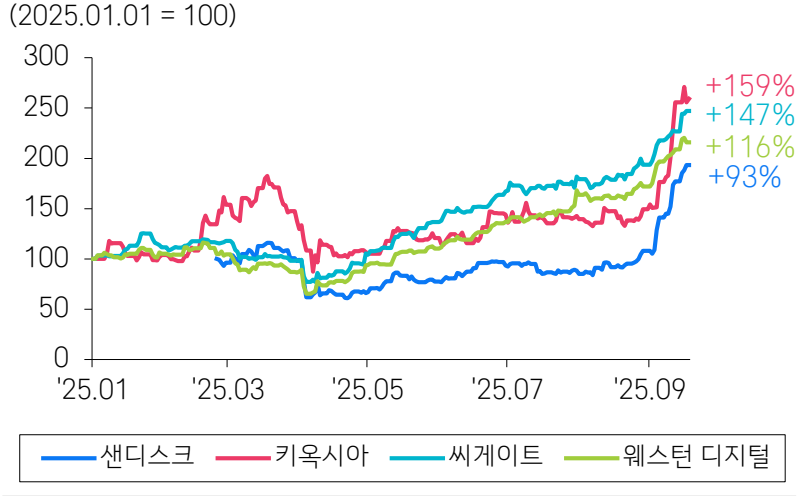
- HDD의 공급이 타이트해진 상황에서 SSD 수요 증가하며 NAND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샌디스크는 NAND 가격을 약 10% 인상하였으며, 마이크론은 수급 상황을 재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NAND와 DRAM 견적 제공을 중단

NAND 스팟 가격 추이



자료: 삼성증권

NAND & HDD: YTD 주가 performance



참고: 샌디스크는 상장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엔비디아 | 끊이지 않는 AI 인프라 투자, 성장 내러티브는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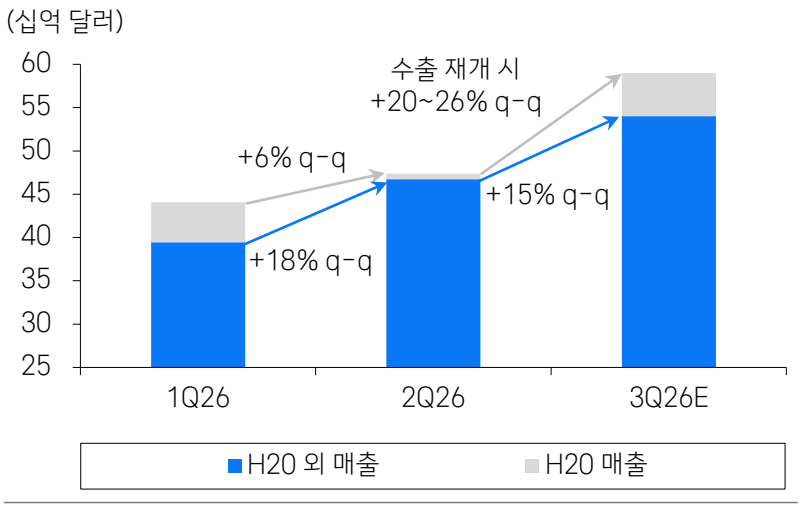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및 3분기 가이던스 전망 발표**
- 2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56%, 전분기 대비 6% 증가하며 Factset 컨센서스 소폭 상회

▶ **xAI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고객의 AI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엔비디아의 전략적 움직임**

▶ **미 정부 UAE 향 엔비디아 칩 수출 라이선스 발급으로 AI 협력 본격화**
- 트럼프 행정부와 UAE가 지난 5월 체결한 AI 협약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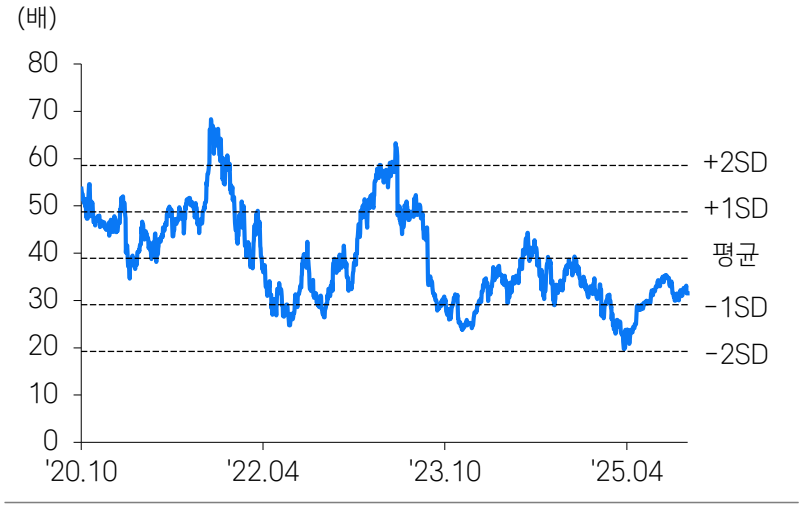
▶ **현재 12개월 Forward P/E 31.5배(vs 5년 평균 38.9배)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구간**

엔비디아 매출액 추이 및 가이던스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엔비디아 12M FW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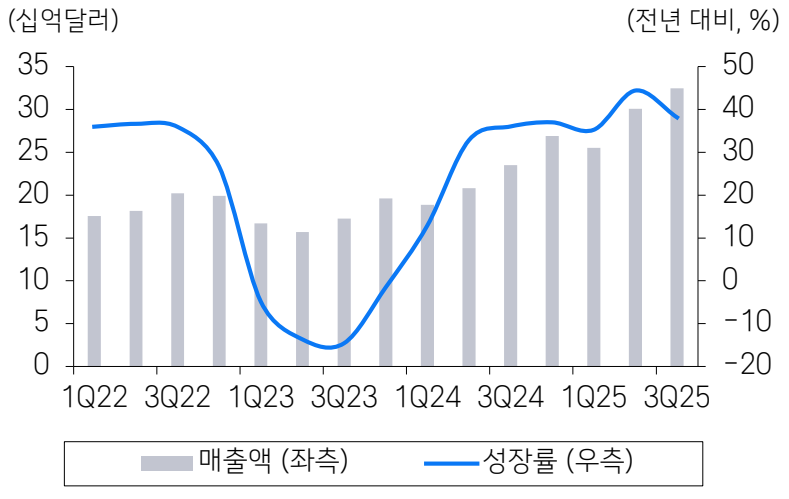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TSMC | AI 인프라 사이클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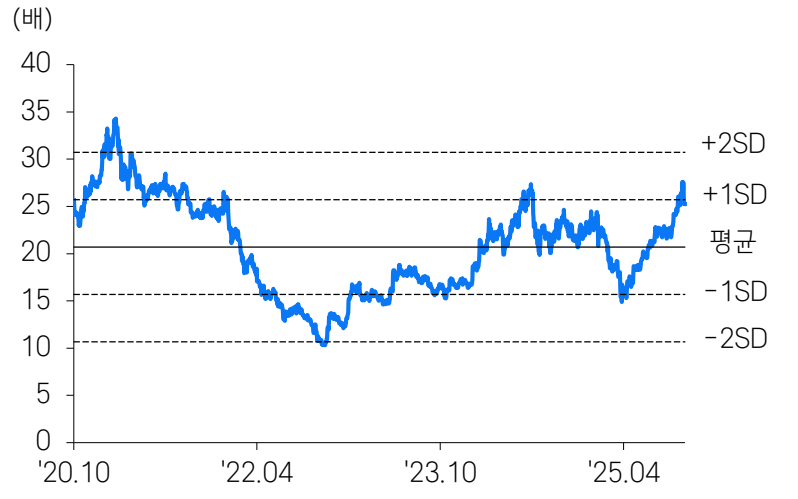
- 현재 주류가 되는 AI GPU, ASIC 모두 생산하는 기업
- AI 인프라 사이클이 지속 확장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화될 2nm cycle에 주목할 필요
- TSMC 3분기 매출 9,899억 대만달러로 YoY 30.3% 증가하여 컨센서스(9,733억 대만달러) 상회
  - 올 3분기까지 누적 2조 7,629억 대만달러 매출로 YoY 36.4% 증가
- 미 행정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1:1로 맞추고 생산을 늘리지 않는 기업에 관세 부과 방침 검토 중.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TSMC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TSMC 분기별 매출액 추이



참고: USD 기준
자료: TSMC, 삼성증권

TSMC ADR 12M FW P/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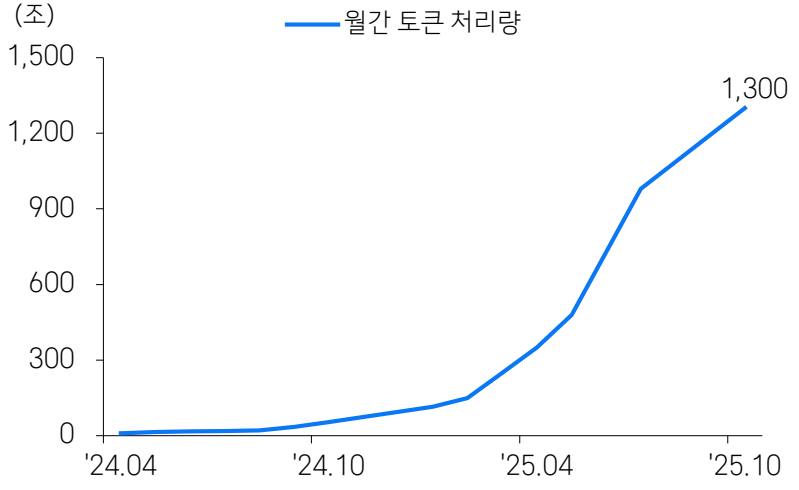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알파벳 | Agentic AI의 최강자를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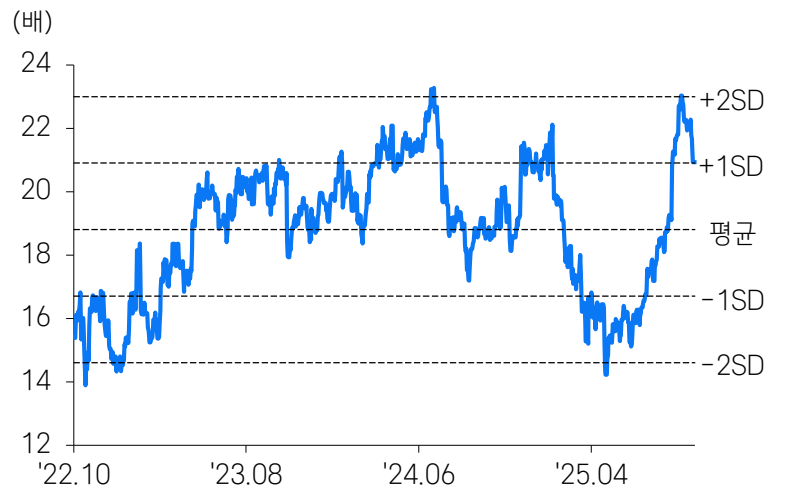
- 인프라, 데이터, 모델 등 AI 풀스택을 구축한 구글. 크롬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Agentic AI 모멘텀의 현실화 가능성 부각
- 클라우드 Backlog는 1,060억 달러 수준으로 클라우드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
  - 구글 Backlog 성장률(YoY +38%)이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YoY +31.7%) 상회
- 구글 월간 토큰 처리량이 1,300조 개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수요 확인 (5월 480조 → 7월 980조 → 10월 1,300조)
- 현재 12개월 Forward P/E 20.9배로 평균 대비 높은 구간이나 AI 풀스택을 구축한 기업으로서 합당한 밸류에이션이라 판단

10월 구글 월간 토큰 처리량 1,300조 달성



자료: Alphabet, 삼성증권

알파벳 12M FW P/E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아마존 | 상대 평가의 아쉬움, 그러나 클라우드 성장세는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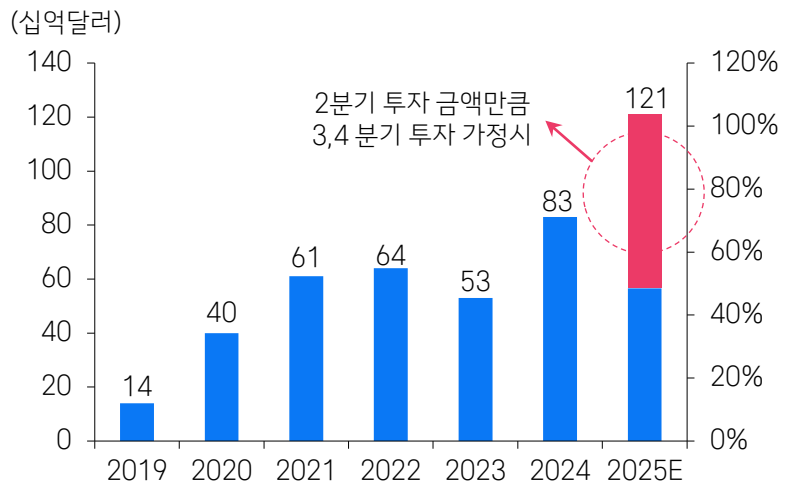
▶ **AWS 매출액 308.7억 달러(+17.5% YoY vs 컨센서스 307.5억 달러 소폭 상회)**

- 경쟁사들이 클라우드 고성장(Azure +39%, GCP +31.7%)을 달성하는 현 상황에서 AWS의 성장률은 다소 밋밋
- 그러나 AWS는 경쟁 기업 대비 매출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

▶ **고무적인 점은 AWS Backlog 성장률은 YoY +25%로 매출 성장률 YoY +17%를 상회했다는 점**

▶ **2분기 실적 코멘트에서도 2분기 CapEx 금액만큼 3, 4분기도 투자할 것으로 언급하며 AI 투자 가속화 의지 표명**

아마존 2025년 CapEx 예상



자료: Amazon, 삼성증권

아마존 12M FW EV/EBITDA 추이

자료: Amazon,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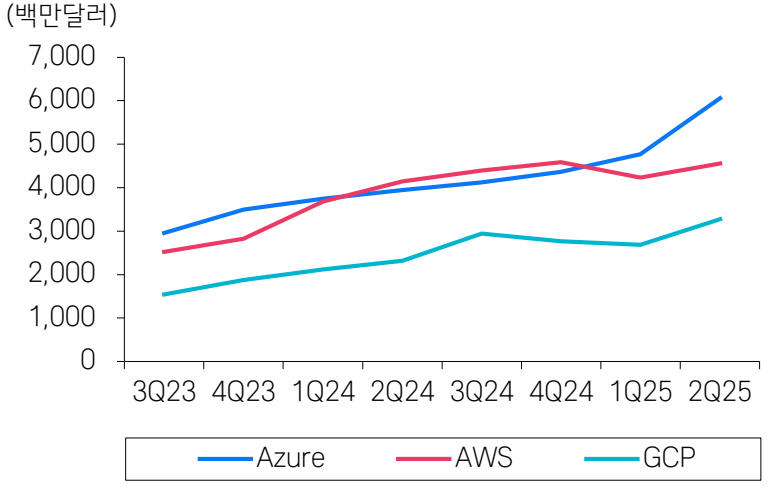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 우리도 캐파 확장 지속

- Azure 성장률 +39%(고정환율 기준)로 성장 지속.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며 빅 3 하이퍼스케일러 중 가장 긍정적인 흐름
- 여전히 수요 〉 공급인 상황에서 캐파 제약 지속. 캐파 제약 해소 시기로 '26년 상반기를 언급하며 타임라인 지연 지속
- 네비우스와 최대 194억 달러 규모 컴퓨팅 캐파 계약 체결. 위스콘신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추가 40억 달러 투자(기존 33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위스콘신 지역 AI 데이터센터 Fairwater 구축

자료: Microsoft, 삼성증권

하이퍼스케일러 빅3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 성장(YoY, 절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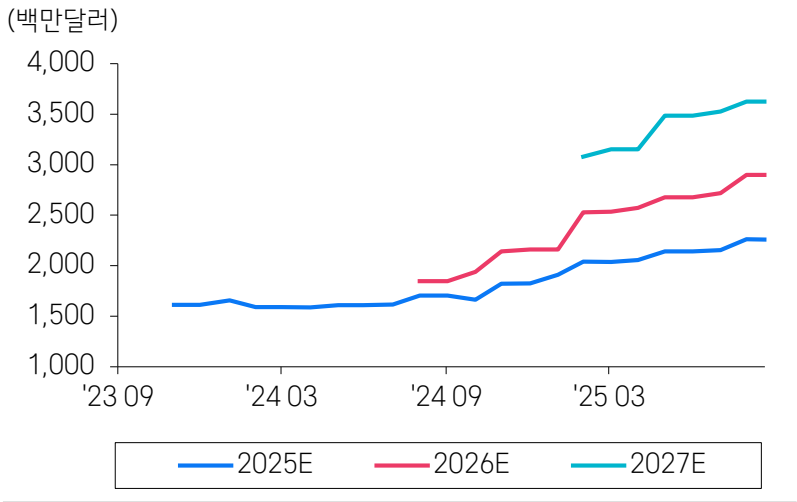


참고: CY 기준
자료: 각사 삼성증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 영국을 넘어 동맹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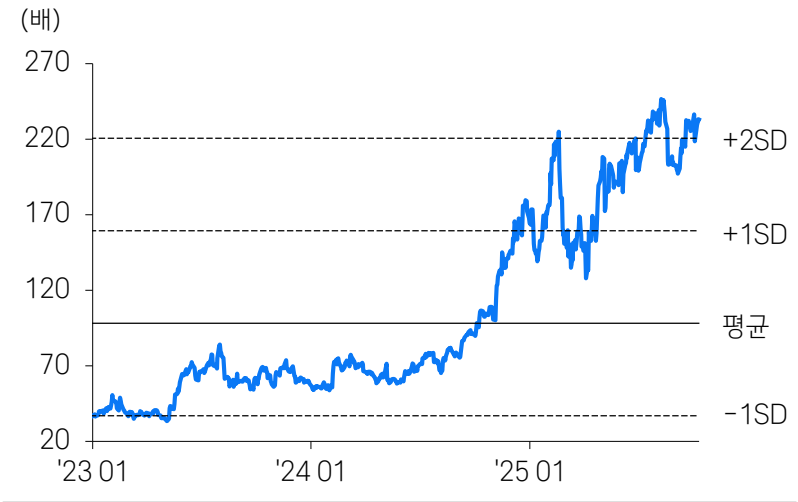
- 시트론 리서치의 부정적 의견과 샘 올트먼의 AI 버블 발언이 촉발한 고밸류 주식 조정. 펀더멘털적으로 변한 것은 전무한 상황
- 영국 국방부와 AI 기반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스템 공급 관련. 5년간 최대 10억 달러 계약 공식 발표. 영국 사업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
- 미 국방부 계약 관련 노이즈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따라 발생한 이슈. 11월 초 실적 시즌에서 모멘텀 재확인 기대

팔란티어 정부 매출 전망치 상향 추세



자료: Factset, 삼성증권

팔란티어 12M FWD P/E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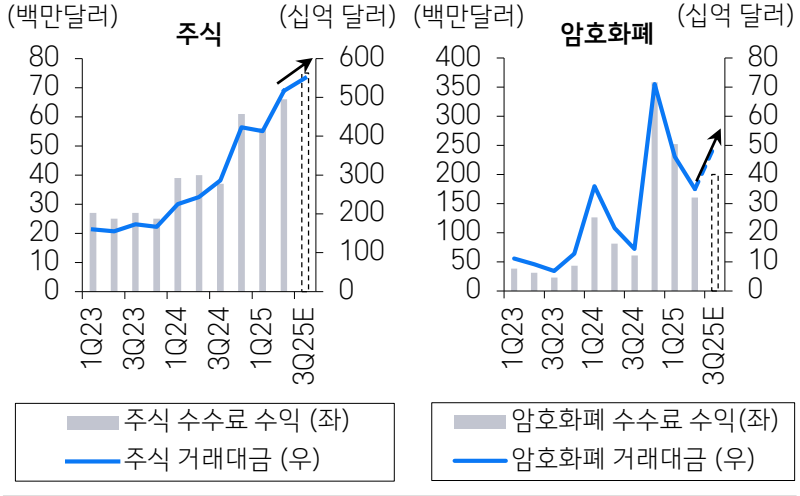


자료: Factset, 삼성증권

로빈후드 | 거래대금 호조에 따른 3분기 실적 기대감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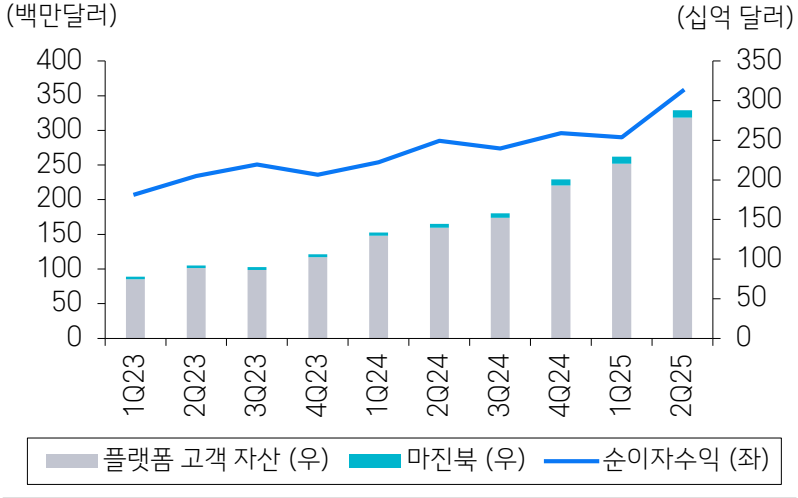
- 7~8월 일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95억 달러 기록. 이는 2분기 83억 달러 대비 14% 높은 수준. 최근 FED 기준 금리 인하 이후 거래대금 증가 추세임을 감안 시 3분기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 여부 주목 필요.
- 6월 유럽/아시아 중심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인수. 이에 따라 7~8월 로빈후드 플랫폼 (로빈후드 app + 비트스탬프) 내 암호화폐 총거래 대금은 568억 달러로 이미 2분기 350억 달러를 상회. 3분기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 기대감 존재.
- 안정적 수익 기반인 플랫폼 고객 자산 및 마진북의 지속적인 증가세 긍정적. 뿐만 아니라, 동사는 6월 비트스탬프 인수 및 유럽 시장에 자사 앱 및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 론칭하는 등 사업 영역 확대 중. 향후 이익 체력 다변화 성과에도 초점 필요.

주식 및 암호화폐와 거래 기반 수익 추이



자료: Robinhood, 삼성증권

순이자 수익 및 고객 자산 추이



자료: Robinhood, 삼성증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 멈추지 않는 AI 투자, 전력 수요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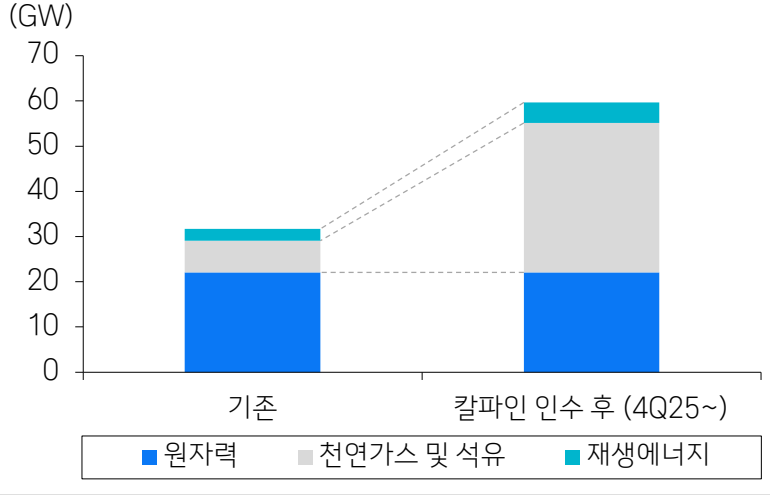
▶ 미국 최대 IPP(독립 전력 생산자)

- 기존 원자력 발전 용량 1위 IPP이며, 칼파인(미국 내 천연가스 1위 IPP) 인수로 천연가스 발전 용량까지 미국 1위로 확대

▶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 증가되며 전력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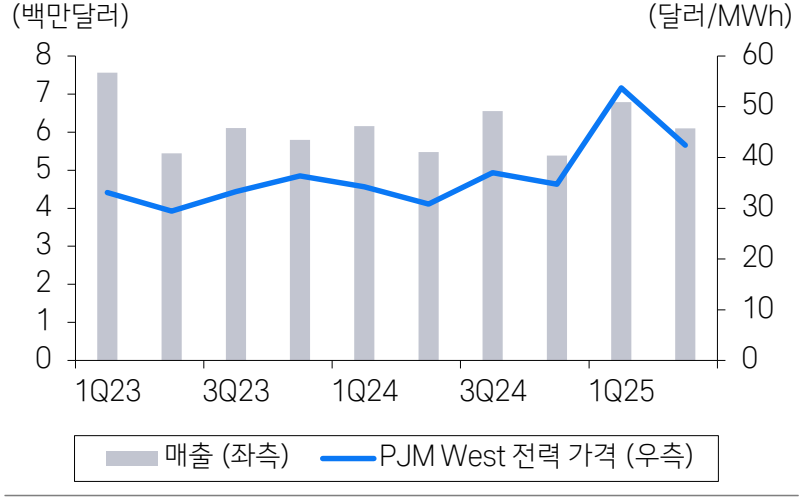
- IPP는 규제받지 않는 자유화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 상승 시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으로 연결
- PJM의 2026/2027 용량 경매 결과, 전력 용량 가격이 전년 대비 22% 상승. 전력 가격 상승으로 실적 모멘텀 확보

발전원별 Capacity



자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삼성증권

전력 가격 상승이 매출 성장으로 연결



자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삼성증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 멈추지 않는 AI 투자, 전력 수요도 급증

▶ PPA(전력 구매 계약) 확보를 통해 장기 성장 기반 마련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가격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PPA를 체결하며 전력 공급 확보에 주력
- PPA는 보통 10~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작용. 장기적인 이익 가시성이 제고되는 효과

▶ 신규 PPA 체결 여력 역시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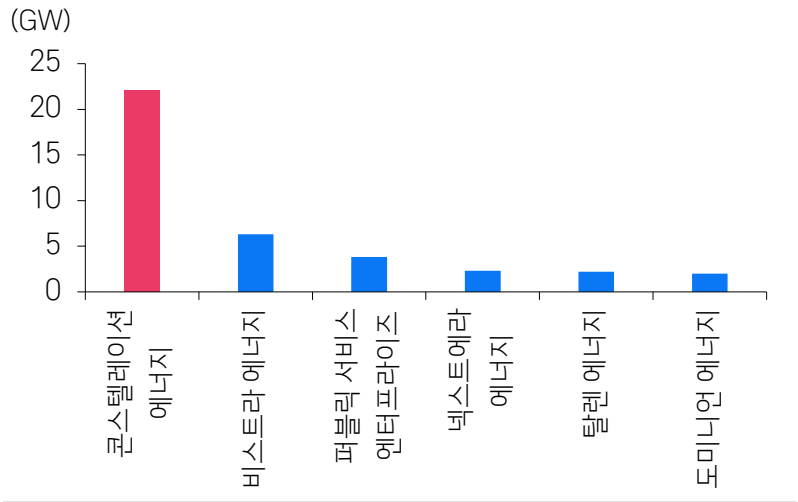
- PJM, ERCOT 모두 전력 수요 예측치를 지속 상향 중이며, 회사는 업계 최대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유 하고 있어 추가 PPA 체결 기회 풍부

주요 PPA 체결 현황

체결 시기	전력 공급 기업	공급 대상	용량	발전원
2024년 8월	비스트라 에너지	아마존	200MW	태양광
2024년 8월	비스트라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	405MW	태양광
2024년 9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	835MW	원자력
2024년 10월	도미니언 에너지	아마존	300MW	원자력
2024년 10월	카이로스 파워	구글	500MW	원자력
2025년 6월	탈렌 에너지	아마존	1,920MW	원자력
2025년 6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메타	1,121MW	원자력
2025년 8월	NRG 에너지	텍사스주 2개 데이터센터	295MW	미공개

자료: 각사, 삼성증권

원자력 발전 용량



자료: 각사, 삼성증권

라인메탈 | 미사일 재고 확충에 나선 미국 국방성

▶ **미국 국방성은 미사일을 생산하는 미국 주요 Defense Contractor들에게 미사일 생산량 확대를 요구**

- 군사대국과의 무력충돌시 현재의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

▶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사례는 미사일/탄약의 소모량이 극심하다는 점을 입증**

- 라인메탈이 보유한 탄약/미사일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
-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는 고도의 전략무기보다는 검증된 지상전력의 가성비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암시

우크라이나 실전 사례의 교훈과 라인메탈의 사업 모델

실전 사례의 교훈 1.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재래식 탄약 및 미사일의 소모

라인메탈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탄약/미사일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매우 긍정적 요인

실전 사례의 교훈 2. 걸프전 시대에 활약한 무기체계들의 효용성 크게 저하

라인메탈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노후화된 자상 전력의 교체가 절실해지는 국면

실전 사례의 교훈 3. 검증된 지상전력의 가성비 입증

라인메탈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실전 배치를 통해 효용이 입증된 기갑 장비들의 수요 확대 기대

자료: 삼성증권 정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들: 당장 활용 가능한 전술 장비에 유리한 환경

▶ 2022년 이후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는 Global Defense Contractor들의 사업 모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

Defense Contractor들이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들

실전 사례의 교훈 1.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재래식 탄약 및 미사일의 소모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탄약/미사일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매우 긍정적 요인

실전 사례의 교훈 2. 걸프전 시대에 활약한 무기체계들의 효용도 크게 저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재래식 무기 체계의 전면적 교체 필요
사례: 라인메탈의 차세대 장갑차량 수주 크게 증가

실전 사례의 교훈 3. 고가의 전략 자산들이 실제 전쟁의 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 활용도 낮은 전략 자산보다는 당장 활용 가능한 전술 장비들에 대한 수요 증가
사례: 록히드 마틴/노스롭 그루만의 전략 자산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사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자료: 삼성증권 정리

도쿄일렉트론 | 엔비디아-인텔 파트너십에 따른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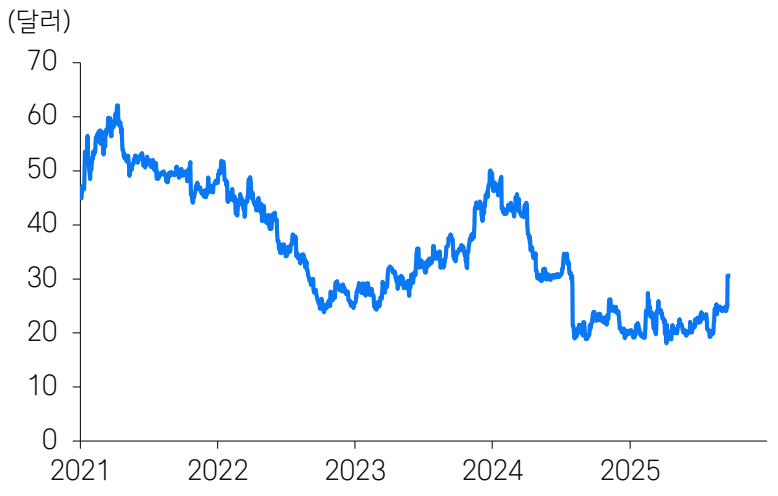
▶ 엔비디아-인텔의 파트너십에 따른 수혜

- 엔비디아와 인텔은 GPU 및 CPU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 개발 파트너십 체결.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 예정.
- 도쿄일렉트론은 고객 중 인텔 비중이 높으며, TSMC 비중이 낮은 편. 전방 고객처 투자 감소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

▶ AI 수요 증가에 따른 eSSD 생산 확대

- AI 수요 증가가 스토리지까지 확대되며 HDD 수요 급증, 타이트한 공급으로 QLC 기반 대용량 eSSD가 HDD 대체재로 부각.
- 데이터센터 및 AI 서버용 eSSD에는 고성능 낸드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중장기적 장비주 수혜 가능.

엔비디아-인텔 파트너십 체결 이후 인텔 주가 21% 급등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도쿄일렉트론 12개월 Fwd PER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 글로벌 Watch List

국가	종목명	티커	섹터	Valuation (배)	YTD (%)	투자 포인트
미국	메타	META US	플랫폼	20.2	20.5	•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AI 경쟁력 강화 기대 • 메타커넥트 2025, AR 글래스 '레이밴 디스플레이' 공개하며 Agentic AI 웨어러블 선두 주자임을 입증
미국	브로드컴	AVGO US	반도체	35.5	40.0	•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안정적 포트폴리오 •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 기업
미국	램 리서치	LRCX US	반도체	27.8	81.9	• NAND 공정 업그레이드 수요 확대 국면 속 수혜 기대 • 반도체 장비 관련 규제 완화 조짐에 따른 하방 리스크 축소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US	반도체	11.2	115.8	• DRAM, NAND 가격 반등과 공급 조정 효과로 실적 개선 기대 • AI 서버용 제품 중심의 성장 모멘텀
미국	스노우 플레이크	SNOW US	소프트웨어	160.7	56.8	• AI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성 대두 • 코어 플랫폼 반등과 AI를 포함한 신규 기능의 침투 지속
미국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D US	소프트웨어	111.2	44.3	• AI 산업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 및 아이덴티티 보안의 중요성 대두 • 사이버 보안 산업 내 벤더 통합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
미국	데이터도그	DDOG US	소프트웨어	73.2	11.1	• AI 네이티브 고객 성장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사용량도 견조한 흐름 • 최대 AI 고객의 내재화 및 최적화 우려가 존재하나 이미 가이던스에 반영

참고: 10/10 종가 기준, Valuation은 12M FWD PER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 글로벌 Watch List

국가	종목명	티커	섹터	Valuation (배)	YTD (%)	투자 포인트
미국	클라우드 플레어	NET US	소프트웨어	200.4	98.6	• 장기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 • AI 추론 성장 속 MCP 서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AI 에이전트 모멘텀 겨냥
미국	오라클	ORCL US	소프트웨어	40.5	75.8	• 오픈AI의 컴퓨팅 캐파 관련 파트너십을 통해 막대한 수주 잔고 확보 • 네오 클라우드 성격의 캐파 확장 전략과 빅테크 대비 앞서는 가성비 강조
미국	웨스턴 디지털	WDC US	IT 하드웨어	17.0	156.2	• 차세대 HDD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수요에 대응 •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생산 효율화 등을 통한 수익성 중심 성장 지속
미국	퓨어 스토리지	PSTG US	IT 하드웨어	39.3	45.5	• 다이렉트 플래시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올플래시 스토리지 제공 • Evergreen 구독 모델 매출 확대를 통해 장기 이익 기반 강화
미국	보스턴 사이언티픽	BSX US	의료기기	28.8	6.8	• PFA(펄스장 절제술) 시장 성장 주도하며 시술 수 증가에 따른 소모품 성격의 카테터 매출 증가 중 • 지속적인 M&A를 통해 외형 확장하며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 가능
미국	비자	V US	결제	26.6	8.7	• 매크로 변동성 확대에도 필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견조한 실적 개선세 시현 • FY25년 매출 성장 가이던스 여전히 두 자릿수 제시 견조한 성장 가이던스 지속
미국	넷플릭스	NFLX US	미디어	38.8	36.9	• FY25년 실적 가이던스 상향하며 긍정적 전망 유지 • 하반기로 이어지는 대작 공개 모멘텀과 광고 사업의 꾸준한 진전

참고: 10/10 종가 기준, Valuation은 12M FWD PER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 글로벌 Watch List

국가	종목명	티커	섹터	Valuation (배)	YTD (%)	투자 포인트
미국	프로로지스	PLD US	리츠	32.3	5.2	• 보호 무역과 관세 도입 가능성 우려로 대선 이후 물류센터 임대차 활동 증가 •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 내 물류센터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 높으나, 공급은 2024년을 정점으로 하락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
미국	카메코	CCJ US	광산·원자력	61.6	68.6	• 원자력 발전 업스트림의 선도 기업 • 트럼프 행정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의 수혜 기대
미국	노스롭 그루만	NOC US	방산	22.2	32.9	• 미국의 전략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 장점 • 차세대 전략 폭격기 개발 관련 비용 정상화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 해소
미국	보잉	BA US	항공·방산	129.5	19.1	• 항공기 인도 대수 증가하는 등 생산능력 뚜렷한 회복 • 중국/미국 간 무역 협상 진전과 함께 중국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 기대 부상
미국	셰니어 에너지	LNG US	에너지	15.6	5.8	• 북미 최대의 LNG 생산 기업 •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수출 확대 정책의 수혜 기대
미국	GE 버노바	GEV US	에너지	52.5	83.8	• Electrification 및 Power사업의 호황 국면 지속 • 원자력/데이터 센터용 발전 설비 등은 잠재적인 성장 동력
미국	비스트라 에너지	VST US	에너지	24.6	42.8	• 유연한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춘 미국의 대표 화력발전 기업 • 미국 전력 요금 상승 추세의 대표 수혜기업 중 하나

참고: 10/10 종가 기준, Valuation은 12M FWD PER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Global Portfolio

삼성 글로벌 Watch List

국가	종목명	티커	섹터	Valuation (배)	YTD (%)	투자 포인트
독일	지멘스	SIE DE	산업재	21.1	28.5	• 시장 대비 Valuation Premium을 뒷받침하는 성장 잠재력 보유 • 공정 자동화 사업이 Turn Around하는 가운데 Smart Industry 사업의 호조 지속 기대
프랑스	에르메스	RMS FR	럭셔리	42.5	-12.0	• 브랜드 파워 및 공급 제한 전략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성 유지 • 아시아 수요 회복세와 함께 견조한 글로벌 성장세 예상
일본	키오시아 홀딩스	285A JP	반도체	11.0	275.6	• AI 추론 수요 증가에 따른 낸드 메모리 호황 전망 • '27년까지 기존 SSD 대비 100배 빠른 AI SSD 출시 예정. HBM 독주에서 NAND 병행 성장 스토리로 확장
일본	NEC	6701 JP	IT 서비스	26.0	75.3	• 정부 DX의 높은 수주 비중으로 일본 정부의 공공 기관 디지털화 추진 수혜 기대 • 유럽 디지털 3사(SWS, KMD, Avaloq) 인수 통해 해외 디지털 소프트웨어 노하우 아시아 지역으로 전개
일본	후지쯔	6702 JP	IT 서비스	20.2	37.7	• AI, 컴퓨팅, 보안 강점과 글로벌 프로토콜 논의 참여로 차별화된 성장, • Uvance 기반 리커링, 표준화율 상승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
일본	호야	7741 JP	IT 하드웨어	31.4	9.9	• EUV용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핵심 공급 기업으로, EUV 첨단 공정 확대 시 구조적 수혜 가능
일본	레이저테크	6920 JP	반도체 장비	26.5	33.2	• EUV용 블랭크 마스크 결함 검사 장비에 대한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보유 • EUV 공정 확산과 함께 동반 성장 기대

참고: 10/10 종가 기준, Valuation은 12M FWD PER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0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0월 1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 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